믿 음 지 혜 실 천	BUDDHANARA	FAITH WISDOM ACTION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매달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시 11 시 전법 기도 법회 및 교리 탐구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y 10am. (매주 토요일 10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육욕보다 더 큰 열기 없고,
증오보다 더 해로운 죄악 없고,
불화보다 더 큰 고통 없고,
열반보다 더 높은 기쁨 없다네.

There is no fire like lust. There is no evil like hate. There is no pain like disharmony. There is no joy like NIRVANA.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8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법전 종정예하 무자년 하안거 결제법어 (전문)

“목과 입 사용 않고 말할 수 있나”

목과 입을 사용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백장선사께서 “목도 입도 쓰지 않고 말할 수 있느냐?”고 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위산영우는 “오히려 스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였고, 오봉상관은 “스님께서 먼저 목도 입도 모두 없애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암담성은 “스님께서 이미 목과 입을 모두 없애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직 목과 입이 남아 있습니까?”라고 대꾸하였습니다.
운문선사는 “평지에 죽은 사람이 무수하다. 가시덤불을 지나가는 자라야 좋은 솜씨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장을 비롯한 모든 종사들은 가시덤불 같은 선문답으로써 사람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언어로는 납자들을 제대로 시험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안목이 열린 공부인이라면 그 말의 낙처(落處)를 제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물음 속에 한 가닥 길이 있음을 안다면 칼끝도 상하지 않고 또 손끝도 절대로 다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납자들은 활구(活句)를 참구할 뿐이지 절대로 사구(死句)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종사가 사람을 지도하는 것은 못과 쐐기를 뽑아주는 이치가 있음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백장선사가 “목도 입도 쓰지 않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에 대하여 대답한 이 대종장들의 말씀은 각각 깊고 얕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나름대로 모두가 자기분상에서 한 소식을 담아낸 것들입니다.
하지만 ‘목구멍과 입술을 닫아버리고 한마디 하라’는 백장의 말씀에 무슨 차례가 있겠습니까? 이미 목구멍과 입술을 다물었다면 또다시 무슨 일을 밝힐게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백장선사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가도 마을을 만나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도 주막이 없습니다.
이처럼 “목도 입도 쓰지 않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은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물음입니다.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기에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서 살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해결방법은 오로지 화두타파 외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승은 항상 간절한 노파심으로 이 법문을 자주 해왔고 또 후학들에게도 두세 번 거듭 일러 왔던 것입니다. 이번 무자년 하안거에도 이 ‘병각인후(倂却咽喉)’ 공안타파를 위하여 용맹심으로 참구해주길 결제에 들어가며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건곤일통물요와(乾坤一統勿訛)어늘
정족삼분사유다(鼎足三分事愈多)라
뇌득백장능파정(賴得百丈能把定)하여
불교용이동간과(不敎容易動干戈)로다.

건곤이 하나로 통합될 때 시비가 없더니
솥발같이 셋으로 나뉘니 일이 더욱 많아졌네.
다행히 백장이 있어 잘 가라앉혔으니
쉽사리 창과 칼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네.

불기 2552(2008)년 하안거 결제일에

조계종 종정 도림법전

기도와 수행의 마음가짐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 수행해야 삼매에 이르고 스스로 지혜 발견

기도나 수행을 할 때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여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할 때 삼매의 상태에 이르고, 스스로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그리고 불교도 모르고 무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나 수행이 성취된다 한들 그것은 분명 불교의 수행과 기도가 아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삿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 올바른 믿음과 정견의 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주변의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또 몸과 마음의 자세와 호흡도 중요하다. 일정한 장소에서 수행하고자 할 때 앉는 자세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호흡이 나온다.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호흡이 안정되었을 때 자연히 정신도 안정되어 쉽게 수행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 수행의 절차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한 정견의 확보, 믿음, 참회, 발원, 각자가 택한 수행법, 그리고 회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잘못과 허물을 짓게 된다. 이러한 잘못은 대부분 세속적 욕망과 이기심, 분별과 망상에 의해 생겨난다. 잘못을 뉘우치고 씻어내지 않는다면 진리에 다가설 수 없다. 따라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해야 한다. 참회(懺悔)는 죄를 뉘우쳐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 바라볼 때 죄의 본성은 없다. 죄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회를 통해 죄지은 마음과 흔적은 씻은 듯 사라진다. 참회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참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매일 108 참회를 한다. 108 배를 하면서 잘못된 행위를 절실히 참회하는 것이다.

우리는 욕심 없이 살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발원(發願)이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이라 한다. 삶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삶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덕목이다. 발원은 그러한 지향점을 나를 비우며 성취해 나가는 몸과 마음의 몸짓이다. 발원하는 삶에는 대립이 없고 소외가 없으며 온전히 전체와 함께하는 삶이 있을 뿐이다.

발원은 욕망으로 물들어 있는 에너지를 생명 창조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부정을 긍정으로, 나에서 우리로, 부분에서 전체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대립에서 평화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발원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사홍서원이다. 사홍서원은 대승 보살들이 깨달음 성취와 중생 구제를 위한 실천덕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타행을 통해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제도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의 서원이다. 사홍서원은 모든 보살들이 지녀야 할, 모든 인류가 지녀야 할 보편적인 원이라 해서 총원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이 만난 인연들

불가촉천민과 살인자까지 만나 참회 통한 수행의 길 걷게 인도

죽림정사와 함께 불교의 2 대 정사로 꼽히는 기원정사는 사위국의 상인인 급고독장자가 부처님께 보시한 절이다. 급고독장자는 마가다국의 친구 집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전율을 금치 못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설법을 듣고 크게 감화를 받아 고향으로 부처님을 초대했다. 그 후 건립된 기원정사는 불교의 거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급고독장자는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부처님은 그런 급고독장자에게 대중들을 거느리는 네 가지 방법인 보시하고(布施), 다정한 말을 건네며(愛語), 이로운 일을 하고(利行), 함께 일을 하는(同事) 사섭법(四攝法)을 갖춘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재가불자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로 경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인도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신분제도가 매우 엄격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성제도가 있는데, 네 가지 계층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천민들이 있다. 똥치기 '니이다나'는 바로 불가촉천민이었다. 그는 부처님이 다가오자 당황하여 피해 다니다가 등에 지고 있던 오물을 쏟고 말았다. 부처님은 니이다나에게 다가가 "내가 수행하는 것은 죄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며 당황하는 그를 배려해 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머리가 좋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부처님 당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주리반특'이라는 사람이 승단에 들어왔다. 그는 머리가 나빠서 간단한 가르침을 주어도 단 한마디도 외우지 못하였다. 결국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승단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자신의 처지가 가여워 슬피 우는 주리반특에게 부처님은 빗자루를 건네주며 '먼지를 털자'라는 말만 외우라고 가르침을 주었다. 주리반특은 그날부터 '먼지를 털자'라는 말만 반복해서 외웠다. 열심히 두 단어만을 생각한 결과, 그는 먼지가 마음속의 번뇌를 가리키며, 털어낸다는 것은 오직 지혜를 닦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서서히 뛰어난 경지를 향해 다가갔다.

앙굴리마라는 스승에게서 "100 명을 죽여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순수했던 앙굴리마라는 스승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 이내 칼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99 명의 목숨을 빼앗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려고 할 때, 부처님이 그 곳으로 가서 끔찍한 살인을 막았다. 희대의 살인마를 잡기 위해 당시 군대까지 동원될 정도였지만, 부처님은 평온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앙굴리마라의 손에서 흉기를 내려놓게 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 진리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출가 후 그는 완전한 참회를 통해 새롭게 수행자의 길을 걸어갔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귀한 목숨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사례이다.

불교방송 "마음의 향기" 12 월 7 일 방송분

부처님 닮기

우리 불자들은 행복합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덧 자신도 부처님 얼굴에 떠오르는 신비하고 자비로운 미소에 마음이 편해 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불시간뿐만 아니라 틈이 날 때마다 부처님 모습을 대하며 부처님의 미소와 그 마음을 닮으려 노력합니다. 하하하 하고 크게 웃는 얼굴의 모습은 아니지만 은은히 번져오는 부처님의 미소를 대하고 있노라면 나의 슬픔도, 나의 아픔도 모두 어루만져 주십니다.
천진한 어린 아기의 웃는 얼굴을 대할 때 어느덧 같이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마음 깨끗한 수행자를 만날 때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때묻지 않은 미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미소, 욕심 없는 청정한 미소,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 것 같은 자비의 미소는 깨달음의 또 한 모습입니다.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진실이 담기고 부드러운 말한 마디의 위력은 설사 칼을 든 살인자를 만나더라도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의사를 전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표현 수단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언어들이 범람함과 동시에 상스럽고 욕된 언어들이 쉽게 퍼지고 난무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중의 하나가 천수경인데 그 첫 구절이 정구업진언 입니다. 정구업이란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란 뜻입니다. 말을 바로 하지 못하여 짓는 업은 참으로 그 무게가 큽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속담에도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갑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말은 의사표현의 도구로서 자신의 감정, 의견 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격과 인간성 그리고 수행력 등이 표출됩니다. 성숙된 인격을 가진 불자라 한다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은 더더욱 삼가 해야 하겠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기 어렵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진실한 말, 자비로운 미소를 띄고 상대방 입장에서 대화를 하면 갈등도 넘어서서 화합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 닮는 수행의 시작이고 마음 수양의 시작 입니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 결 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

불기 2552 년 일년 등 동참자

지면 관계상 가족 대표만 적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신도님들은 미국 불국사나 한국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일년 연등 동참자 명단

불기 2552 년 부처님 오신 날 일년 등에 동참하신 신도님들의 등은 5 월 4 일 부터 5 월 11 일 까지 봉축 7 일 기도후에 법당에 일년 동안 연등을 올렸습니다.

0 번 세계 평화 원만 성취

0 번 Atlanta, GA 불사 원만 성취

1 번 을해생 무량화 문봉순, 2 번 무자생 문병현, 3 번 임인생 문병귀, 4 번 기유생 문성훈, 5 번 기사생 김재수, 6 번 임진생 조남국, 7 번 김대성, 8 번 병오생 이찬혁, 9 번 병오생 노덕복, 10 번 정해생 한복희, 11 번 계유생 Jack Benton, 12 번 임술생 한동빈, 12 번 신사생 김일원 (I. K. Kim Ja Be Ryu), Lawson Robinson, 15 번 Brian Barry, 16 번 무술생 박금란, 17 번 Debra Tak, 18 번 경인생 월인 안수근, 19 번 신축생 강용택, 20 번 을유생 보산 이성옥, 21 번 경인생 이재권, 22 번 갑오생 배제현, 23 번 기축생 김헌웅, 24 번 정미생 이강희, 25 번 갑오생 허정석 (근일), 26 번 한정언, 27 번 정충식, 28 번 신상옥, 29 번 병인생 김승준, 30 번 임술생 허다원, 31 번 시지호, 32 번 임진생 법성 이상철, 33 번 정유생 대혜 임종춘, 34 번 병신생 홍인숙, 35 번 병신생 김영준, 36 번 갑자생 양시황, 37 번 정유생 임명오, 38 번 신축생 강경식, 30 번 신미생 이주홍, 40 번 경진생 박영찬, 41 번 무신생 박수민, 42 번 무자생 박정근, 43 번 신사생 박 설산향, 44 번 갑인생 박은지, 45 번 무자생 김대원, 46 번 임오생 Michael-Lee- Cottmeyer, 47 번 정유생 박래경, 48 번 무술생 백련화 김효례, 49 번 기사생 박으뜸, 50 번 신미생 박꽃별, 51 번 무인생 박샛별, 52 번 을사생 송보영, 53 번 을사생 강효정, 54 번 임신생 송채원, 55 번 계유생 송지환, 56 번 계묘생 한석성, 57 번 기유생 손보경, 58 번 을해생 한정아, 59 번 을해생 한사윤, 60 번 갑술생 이범학, 61 번 기사생 김가연, 62 번 정축생 권효영, 63 번 무술생 장재훈, 64 번 병오생 윤영목, 65 번 법륜월 장 지영, 66 번 갑신생 탁순자, 67 번 을유생 서일원, 68 번 병술생 서지혜, 69 번 정유생 이창원, 70 번 기해생 윤미선, 71 번 정묘생 이두열, 72 번 기사생 이연수, 73 번 기축생 원종철, 74 번 갑진생 이경아, 75 번 무인생 원유경, 76 번 경진생 원재헌, 77 번 신축생 곽영식, 78 번 병오생 곽효식, 79 번 을해생 김기윤, 80 번 을묘생 김문희, 81 번 무신생 김형석, 82 번 기유생 조현준, 83 번 신해생 정종원, 84 번 병오생 김태근, 85 번 경인생 이도성, 86 번 갑오생 김경희, 87 번 병인

생 이재원, 88 번 기유생 김유중, 89 번 갑인생 신재준, 90 번 병진생 신재성, 91 번 임인생 신희창, 92 번 병오생 김현영, 93 번 임신생 신소담, 94 번 을해생 신윤교, 95 번 갑진생 강영철, 96 번 갑진생 김현미, 97 번 임신생 강수용, 98 번 임오생 강호찬, 99 번 경인생 이강우, 100 번 계사생 정계선, 101 번 경신생 이상엽, 102 번 임술생 이상진, 103 번 정사생 김태현, 104 번 을미생 유 철, 105 번 병신생 김순천, 106 번 계해생 유승제, 107 번 경신생 김영은, 108 번 임인생 옥채석, 109 번 갑진생 이학웅, 110 번 임인생 정연우, 111 번 병신생 최숙자, 112 번 임인생 김영숙, 113 번 신미생 정유진, 114 번 갑술생 정성욱, 115 번 갑오생 이정숙, 116 번 무신생 양재준, 117 번 경술생 양재용, 118 번 신묘생 김호수, 119 번 계해생 김민정, 120 번 임인생 배영우, 121 번 정미생 이순옥, 122 번 임신생 배지원, 123 번 기유생 김혜영, 124 번 신유생 배양미, 125 번 임진생 최경룡, 126 번 경오생 최지안, 127 번 임신생 김진명, 128 번 계유생 김진민, 129 번 정축생 이희만, 130 번 계사생 백정수, 131 번 임인생 김경수, 132 번 갑진생 차재관, 133 번 임자생 이경복, 134 번 정유생 정명 이용성, 135 번 계해생 이상준, 136 번 임진생 노성열, 137 번 갑자생 노재준, 138 번 무진생 신태덕, 139 번 기사생 강미자, 140 번 Bill Lewis, 141 번 을사생 최인협, 142 번 기축생 김수철, 143 번 경오생 김동호, 144 번 임신생 김단희, 145 번 을사생 손영찬, 146 번 정미생 박광수, 147 번 무술생 김형숙, 148 번 임인생 송완근, 149 번 무술생 김정훈, 150 번 을미생 백석현, 151 번 경진생 김영회, 152 번 갑신생 이희영, 153 번 무신생 김태성, 154 번 계축생 수정화 이금주, 155 번 신사생 김준협, 156 번 정해생 김준성, 157 번 병오생 김기환, 158 번 경술생 최성환, 159 번 경진생 이길자, 160 번 갑오생 길림주 임태훈, 161 번 갑인생 신동화, 162 번 정미생 오은정, 163 번 무신생 최동화, 164 번 정사생 김대도, 165 번 경술생 정현식, 166 번 정인수, 167 번 병진생 이홍기, 168 번 경오생 최준혁, 169 번 이혜성, 170 번 무술생 반야륜 이태인, 171 번 을사생 김형남, 172 번 계해생 김성현, 173 번 병신생 양순영, 174 번 지장법희, 175 번 계유생 무진 최무직, 176 번 기축생 박종림, 177 번 무인생 김순옥, 178 번 정미생 황현식, 179 번 정장균, 180 번 을미생 류영옥, 181 번 대구 문수행, 182 번 이석정, 183 번 대경통신 황인환, 184 번 조성기, 185 번 신미생 송현창, 186 번 을미생 강철수, 187 번 박병윤

그외 동참하신 신도님들: 갑진생 최상춘, 경진생 최원, 배민현, 김국희, 배성호, 갑술생 옥종훈, 을해생 김길선, 을사생 옥현석, 무오생 옥지현, 병진생 박충우, 을해생 주순철, 기유생 주민성, 신사생 주원주, 계묘생 주인숙, 기묘생 장영순, 갑오생 김운태, 정유생 민영임, 경진생 이해뜬, 병오생 최재운, 신해생 김혜진, 신사생 최동연, 임오생 최현호, 병오생 서명철, 기유생 김인자, 무인생 서예진, 신사생 서아리, 경오생 이은순, 경오생 윤태호, 신미생 윤희진, 신축생 이종우, 신축생 윤지선, 병자생 황진문, 갑신생 최옥자, 을사생 황성준, 정미생 황성욱, 계축생 김명희, 을묘생 김대훈, 을해생 김영민, 신미생 김현정, 경진생 조소영, 임오생 조시형, 신축생 윤정화, 계유생 옥영재, 을해생 옥연지, 계해생 김영현, 기유생 김해영, 갑술생 이관용, 기묘생 이호용, 신사생 이재용, 을사생 김세환, 을해생 김주한, 임신생 김기훈, 정해생 신관호, 을미생 윤정선, 계해생 신범수, 갑자생 신정원, 갑술생 김희령, 무인생 김희천, 무인생 윤대훈, 임오생 윤아리, 갑술생 김현준, 기사생 전은정, 임신생 전병규, 무인생 전호연, 갑술생 권선중, 계유생 권해나, 무인생 박주연, 임오생 박중현, 무인생 이정수, 임오생 이정빈, 모오생 장동일, 기미생 김정연, 정해생 장아진, 갑인생 장미연, 무신생 안젤로 몽구찌, 병술생 사라 몽구찌, 무신생 남기철, 신해생 장소연, 을해생 남지원, 기묘생 남준현, 갑술생 최해탁, 기미생 박행필, 기미생 최승와, 경신생 최정화, 계해생 최좌연, 경자생 김용철, 무신생 정경연, 무인생 최현창, 경북 윤낙현, 김안기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기도 명단이 누락되신 신도님들은 미국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로 속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영가 연등 동참자 명단

불기 2552 년 (2008 년) 5 월 4 일 부터 5 월 11 일까지 7 일 기도 후에 5 월 7 일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부터 일년동안 법당에 등을 올렸습니다. 영가님들 왕생극락을 축원 올립니다.

1 번 강석주 대종사 선영 영가 (선각 복위)
2 번 망부 남평후인 홍법 문정모 영가 (문병현 복위)
3 번 망조부 남평후인 문해경 영가, 망조모 인천유인 채정조 영가, 망조부 남평후인 문길한 영가, 망조모 평산유인 신갑연 영가 (문병현 복위),
4 번 망부 진야후인 정원도 영가 (정인수 복위)
5 번 망오빠 탐진후인 최치남 영가 (최문선 복위)
6 번 망 달성배씨 조상 영가 (배제현 복위)
7 번 망 탐진 최씨 조상 영가 (최문선 복위)
8 번 망 김녕후인 덕운 김진희 영가
9 번 망조모 밀양유인 손덕연 영가, 망모 진학미 영가 (박수민 복위)
10 번 망 전주 이씨 이호섭 영가 (이호임 복위)
11 번, 망조부 버들후인 유홍련 영가, 망조모 밀양유인 박복남 영가, 망부 밀양후인 박석우 영가, 망모 파평유인 윤종남 영가 (박 설산향 복위)
12 번 망도반 광산유인 김가야 영가, 망도반 원주후인 변형각 영가 (강효정 복위)
13 번 망증조모 진주유인 강씨 영가, 망조모 청주유인 한만수 영가 (장지영 복위)
14 번 망자모 전주유인 이정진 영가 (최숙자 복위)
15 번 망 여동생 김해유인 김복희 영가 (김숙희 기부)
16 번 망 자 사천후인 목문균 영가 (윤선정 기부)
17 번 망 김해김씨 일체 영가 (김효정 복위)
18 번 망 밀양박씨 일체 영가 (박광수 복위)
19 번 망 외조부 청풍후인 김유근 영가, 망 외조모 인동유인 장소녀 영가, 망부 상산후인 김금진 영가 (김동희 복위)
20 번 망 창원 황씨 일체 영가 (황현식 복위)
21 번 망 외조부 진야후인 정건선 영가, 망 외조모 김해유인 김또인 영가 (황현식 복위)
22 번 망 밀양박씨 일체 영가 (박계영 복위)

그외 동참하신 영가님들: 해주유인 정영숙 영가 (이순옥 복위), 배수덕 영가 (배영우 복위), 전주유인 이두칠 영가 (배영우 복위), 김해유인 김화방 영가 (서지혜 복위), 경주유인 최칠순 영가 (서지혜 영가), 전주이씨 수자 영가 (이응수 복위), 배신덕 영가 (배영우 복위), 전주후인 이재현 영가 (이순옥 영가), 동래유인 정정금 영가 (서지혜 영가), 청주후인 양갑성 영가 (서일원 복위), 캠 탐슨 영가 (탁순자 복위), 광산후인 탁양수 영가 (탁순자 복위), 김해유인 김선녀 영가 (탁순자 복위), 도경순 영가 (탁순자 복위), 광산유인 탁현숙 영가 (탁순자 복위), 전주후인 이종액 영가 (이재숙 복위), 경주유인 최숙희 영가 (장지영 기부), 밀야후인 박지형 영가 (장지영 복위), 인천이씨 수자령 영가, 이갑진 수자령 영가 (이갑상 기부), 진주후인 강종선 영가 (강미혜 복위), 해주후인 최흥섭 영가 (최재운 복위), 진주유인 강숙례 영가 (장지영 복위), 달성후인 서현석 영가 (서명철 복위), 김녕유인 김옥순 영가 (서명철 복위), 광산유인 김명수 영가 (장지영 복위), 밀양유인 박행분 영가 (박행필 복위), 전주유인 이춘매 영가 (김춘자 복위), 인동후인 장택상 영가 (장지영 복위), 은진유인 송씨 영가 (장지영 복위), 파평유인 윤씨 영가 (장지영 복위), 동래유인 정씨 영가 (장지영 복위), 인동후인 장기현 영가 (장지영 복위), 인동유인 장기순 영가 (장지영 복위), 김해후인 김영환 영가 (장지영 복위), 안동유인 김영희 영가 (장지영 복위), 밀양유인 박입분 영가 (김춘자 복위), 김해후인 김창성 영가 (김춘자 복위), 마사오 다께다 영가 (윤주원 복위), 금녕김씨 일체 영가 (김미형 복위), 인천후인 이씨 영가 (이갑상 복위), 증조모 영가 (이갑상 복위), 인천후인 이씨 영가(이갑상 복위), 조모 영가 (이갑상 복위), 인천후인 이석용 영가 (이갑상 복위), 금녕유인 김분조 영가 (이갑상 복위), 인천유인 이점선 영가 (이갑상 복위), 은진유인 송위숙 영가 (이갑상 복위), 인천후인 이계묘 영가 (이갑상 기부), 인천후인 일체 영가 (이갑상 복위), 인천유인 일체 영가 (이갑상 복위), 지인 일체 영가 (이갑상 복위), 밀양유인 손씨 영가 (김미형 복위), 외조모 영가 (김미형 복위), 금녕후인 김명기 영가 (김미형 복위), 파평유인 윤상옥 영가(김미형 복위) , 양찬모 영가 (김미형 복위), 김대겸 영가 (김미형 복위), 유모 영가 (김미형 복위), 식모 영가 (김미형 복위)

부처님 오신 날 일년 연등 기도 동참자 명단이 누락되신 신도님들은 미국 불국사 (Buddhanara Temple)로 속히 연락 바랍니다.

법회소식 NEWS

- 불기 2552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인 "부처님 오 신 날" 을 맞이 하여 일년 연등은 187 개 일년 영가 연등은 22 개 를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그외 일년 등은 올리지 않았지만 부처님 오신 날 기도 동참을 해주신 신도님들도 다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신도님들의 일년등 불사 동참에 감사 드립니다.
- 불국사 **(Buddhanara Temple)**는 **2008** 년 **5** 월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달 두번 법회**"**를 갖습니다. 단 정초 기도, 부처님 오신 날 법회, 백중 제사 등 이 들어 있는 달의 경우는 예외이나, 평달은 첫째주 일요일과 셋째 주 일요일에만 정기 법회를 갖습니다. 토요 참선 법회는 기존대로 매주 토요일 **10** 시에 있습니다. 법회 참석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버마(먐마)를 휩쓴 싸이클론과 중국에서의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서는 고통속에 신음하는 분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호 기금 모금에 동참을 희망하시는 신도님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도님들이 보내주시는 지원 동참금은 불국사에서 한꺼번에 모아 대한 불교 조계종 종단으로 보냅니다. 종단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지원금을 보내 지원 합니다.
- 한국불교가 미국땅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지 어느덧 **40** 여년이 되갑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미주 승가회가 **2006** 년 **10** 월 **LA** 관음사에서 발족되었는데 그 산하에 동부지부, 중부지부, 서부지부, 태평양지부의 **4** 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부 지부를 제외한 다른 지부들은 다 결성되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적으로 절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이제야 중부 지부가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초대회장에 디트로이트 무문사 도만스님이 추대 되셨고, 부회장에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선각스님, 그리고 총무 소임에 시카고 불타사 현성스님이 임명 되었습니다.
  이번 대한불교 조계종 미주 중부 승가회의 발족을 계기로 미국 중부 지역 사찰들이 승가회로 결성된 만큼 각 사찰의 개별적인 활동에 대한 승가회 차원의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각 사찰 신도님들 간의 교류를 폭넓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은 **7** 월 **13** 일 불교 **TV** 방송 **"**일요법문**"** 및 녹화 그리고 애틀랜타 불사 관계로 **7** 월 **7** 일 부터 **7** 월 **23** 일까지 한국으로 일시 귀국합니다.

5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98 번 계해생 김성현, 99 번 신유생 김혜련, 193 번 계묘생 김덕호, 194 번 신축생 이병옥, 195 번 신미생 김정우, 196 번 갑술생 김수우, 200 번 윤기섭, 248 번 병신생 강영순, 249 번 경신생 이미애, 250 번 갑자생 이학진, 251 번 기사생 이진아, 260 번 병자생 김지연, 261 번 정축생 김지환, 281 번 정유생 김상룡, 282 번 신축생 공문희, 283 번 정묘생 김명선, 284 번 무진생 김성엽, 348 번 병진생 장연꽃, 461 번 갑오생 문용철, 475 번 기사생 강미자, 476 번 신축생 강용택, 477 번 기해생 관음성 강상숙, 478 번 경오생 강정철, 479 번 무인생 강현대, .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5 월 한 평 불사 동참자: 양순례, 성숙경.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